

※ [Version : 20121012]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종 버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영화음악 사용허락에 Q&A (2)”

-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합의 후  
기존곡 사용을 중심으로 -

###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 연락처 : 02 2267 9983

• 이메일 : [kfpa3@kfpa.net](mailto:kfpa3@kfpa.net)

• 홈페이지 : <http://www.kfpa.net> →[게시판]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 “영화음악 사용허락에 Q&A (2)”

-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합의 후  
기존곡 사용을 중심으로 -

### - 목 차 -

- Q & A자료집 작성 배경
- 영화음악 사용허락에 관한 Q&A
- 1. 기존곡 사용에 관한 합의 ----- p 1 ~ p 8
- 2. 합의 이후 남은 과제 ----- p 9 ~ p 10

### - 참고 자 료 -

-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기존곡 사용에 관한 합의서  
(2012.09.04.) ----- 11 p
- 기존곡 사용 방법 ----- 13 p
-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2012.03.15. 문화부 승인안)  
----- 15 p
- 합의안에 따른 영대위 계산 근거 자료 ----- 16 p
-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 ----- 18 p
- 음악감독 계약서 중 영화음악대책위원회가 권고하는 '저작권'관련 조항  
----- 19 p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감독 계약서 전문 ----- 20 p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감독 계약서로 계약할 경우 문제점 ----- 24 p
-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용료 징수규정 ----- 26 p

## Q&A 자료집 작성 배경

영화계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과 그 대가에 대하여, 복제 사용대가는 영화 제작자에게, 공연사용대가는 극장에게 징수하겠다고 주장하며, 2010년 10월 음저협 임의로 사용 신청서를 변경하였다. 그리고는 영화계에 변경된 사용신청서에 따라 2010년 10월 이후 음저협의 신탁저작물(기존곡)을 사용해 제작한 모든 영화의 상영은 불법적인 공연행위(=영화상영) 이므로 불법공연행위가 이루어진 극장을 대상으로 법적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면서 2011년 11월 롯데시네마를 '불법적 공연과 상영행위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이어 2012년 음저협은 4월 CGV와 메가박스에 각각 약 29억, 약 16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에 영화계는 투자/제작/배급/상영을 비롯해 여러 협회들이 참여해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를 구성해 음저협의 주장에 대해 대응해 왔고, 그 결과 2012년 9월 4일 문화부 중재 하에 음저협과 기존곡 사용에 관해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음저협 소속 음악감독들의 창작곡 적용에 관한 문제, 2010년 10월 음저협의 사용신청서 변경부터 2012년 3월 15일 문화부 승인안 전까지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CGV 소송의 판결에 따르기로 한 상황이다.

본 자료집은 음저협의 주장과 문제점, 그리고 영화계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올바른 대응을 위해 작성되었다. 작성된 2차 자료집이다. 1차 자료집(버전: 201208222)에서는 음저협의 주장 및 음저협 대응 논리를 위주로 작성되었고, 현 2차 자료집에서는 음저협과 합의 이후 실제 영화에 음저협 신탁곡을 사용하는 방법 및 향후 남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영대위 게시판에(한국영화제작가협회 [www.kfpa.net](http://www.kfpa.net) 에서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게시판 이용)는 음저협과 관련한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고, 영화음악과 관련한 저작권 이슈에 관한 질의/응답이 가능한 게시판도 오픈되어 있다. 본 자료집 및 영대위 게시판이 영화제작현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에 관한 Q&A

-----  
 통상곡 = 기존곡 = 스킵 = 영화와는 무관하게 기존에 발표된 음악  
 창작곡 = 오리지널 스킵 =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음악  
 -----

### 1. 기존곡 사용에 관한 합의 관련

**Q) 2012년 9월 4일 음저협과 기존곡 사용에 관해 합의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

A) 문화부 중재 하에 영대위와 음저협이 기존곡, 즉, 음저협 신탁곡에 관한 음악사용료 징수에 관해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다.

합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 CGV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남기고, 롯데의 형사 고소 및 메가박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다.

둘째, 음저협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에 대한 권리 및 문화부 승인안 전까지 소급분에 대한 적용은 CGV 판결 결과에 따른다.

셋째, 기존곡 사용료 징수규정은 현재 문화부가 3월 15일 승인한 음저협 사용료 징수규정 제34조 1항에 따라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 곡당 사용료는 " 300만원 + (스크린당 곡 단가 13,500원 x 개봉 첫날 스크린 수)로 한다.

넷째,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는 위 기준의 1/10을 적용한다.

다섯째, 음저협은 저작권격권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Q) 각 합의 내용에 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먼저, CGV에 대한 소송만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

A) CJ CGV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CJ는 사내 법무팀도 구성되어 있어 타사에 비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영대위에 참여하면서 CJ는 영화계의 만형으로서 소송에 남기로 대표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CGV가 대표로 소송에 남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영화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이 소송을 CGV 개별사와 음저협 의 소송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Q) 그렇다면, 음저협 소속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창작곡의 권리문제, 문화부 승인안 이전의 기존곡을 사용해 제작한 영화의 소급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용 여부가 CGV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인가?**

A) 그렇다.

영대위는 음저협과 음악사용료에 관해 논의하면서 취했던 입장이 있다.

첫째, 과거 소급분(음저협이 임의로 사용신청서를 변경한 2010년 10월부터 문화부가 음저협 징수개정안을 승인한 2012년 3월 15일 이전까지 음저협에 신탁된 곡을 사용해 제작한 영화의 경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 등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영화제작자가 영화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저작권비용을 일괄 납부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

셋째, 복제·배포·공연 등 일괄 납부는 개봉첫날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영화제작자가 납부한다.

넷째,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하는 곡은 음악감독 및 영화제작자와의 개별

계약에 의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사용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에서 신탁약관을 이유로 추가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섯째, 10억 미만의 영화는 1/10 감액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런데, 본 합의에서는 음저협 소속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하는 곡에 대한 권리문제와 소급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영대위와 음저협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현재 남아 있는 CGV 소송의 결과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먼저, 소급분의 경우 2010.10. 음저협의 사용신청서 임의변경~ 2012.03.15. 문화부 승인안까지의 소급분에 대해서 음저협이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주장했던 금액은 7억 5천만원 정도이다.

두 번째, 음저협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에 대한 적용 문제를 살펴보면, 음저협의 주장은 음저협 신탁규정에는 음저협에 신탁회원으로 가입하면 미래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모두 음저협에 자동 신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영화계의 주장은 음저협 소속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한 신규창작물은 음악감독이 신탁행위를 하기 전에 창작하고 계약한 곡으로써 영화제작자와의 개별 계약이 우선하는 것이며, 또한 영화제작자는 저작권료를 포함한 비용을 다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용은 현재 남아 있는 CGV 민사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한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CGV 소송은 영화계 전체의 소송으로 영화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Q)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보통 대법원까지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적어도 2014년 정도가 되어야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대위는 영상물특례조항에 의거해(1차 자료집 참조) 영대위가 주장하는 대로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곡은 신탁계약에 우선한다 즉, 창작곡에는 지금 합의안에 따른 34조 1항에 의거한 곡당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음악감독과 계약할 때 지급하는 비용 외에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곡에 대해 영화 개봉 전에 34조 1항에 의거한 비용을 음저협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대위에는 음저협 소속 음악감독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계약서 가이드를 안내하고 있다.

**Q)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음저협 소속 음악감독과 작업을 할 경우 영대위가 제시하는 저작권 가이드를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인가?**

A) 그렇다.

그 내용은 자료집 00페이지에 계약서 조항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Q) 합의안에 따라 기존곡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아래에서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자료집 페이지 0000의 기존곡 사용 방법을 참고)

1) 음저협에 기존곡 사용을 위해 '영화사용신청서'를 안내에 따라 작성한 뒤 제출

비고1	비고2
<p>■ 음저협 홈페이지 (<a href="http://www.komca.or.kr">www.komca.or.kr</a>) 서식 다운로드</p>	<p>• 음저협 홈페이지(<a href="http://www.komca.or.kr">www.komca.or.kr</a>) 상단메뉴 중 [이용허락신청서]에서 '영화신청서' 서식 다운로드</p>
<p>■ 문의 및 접수처</p>	<p>• 전화) 02-2660-0503 / 팩스) 02-2660-0509 • 이메일) <a href="mailto:komca80@hanmail.net">komca80@hanmail.net</a></p>
<p>■ 제출서류</p>	<p>• 영화사용신청서 1부, 사용 저작물 리스트 (※ 영화사용신청서 2페이지에 있음) • 영화사용신청서 [공지사항]의 &lt;구비서류&gt; ①~③ - ①사업자등록증, ②음악 Scene 설명서, ③제작비확인서</p> <p>★③제작비확인서는, - 「순제작비 10억 이상」의 작품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작품만 제출함 - 순제작비 10억 미만 확인서는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 최경진 과장에게 문의 후 발급 받음 • 연락처) 02-958-7564</p>

2) 신청내역에 "34조1항"으로 기재

3) 개봉 첫날 예정 스크린 수 기재

비고1	비고2
<p>■ 개봉 2~3일 전 확정되는 스크린 수 기재</p>	<p>• 예매 개시 후 확정되는 스크린 수 참조</p>

4) 3)에 기재한 '개봉첫날 예정 스크린수'를 기준으로 34조1항의 산식을 적용한 계산결과에 따른 비용을 음저협에 계좌이체로 납부

비고1	비고2
■ 산식	<p>• 300만원 + (스크린당 곡단가 13,500원 X 개봉 첫날 스크린 수)</p> <p>※ 산식은 '개봉 첫날 스크린수'이나, 3.의 '개봉 첫날 예정 스크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납부하고, 차액은 6~8에 따라 추후 정산</p> <p>★ 「순제작비 10억 미만」 작품은 “1/10로 감액”한 비용을 납부</p>
■ 계좌정보	<p>• 입금계좌 : 국민은행 851237-04-001225</p> <p>• 예금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p>

5) 음저협에서 “사용승인서” 수령

6) 개봉 첫날 영진위 통합전산망에서 '개봉 첫날 스크린수'를 확인하고, 34조1항 산식을 적용해 비용을 계산

★ 「순제작비 10억 미만」 작품은 “1/10로 감액”한 비용을 납부

7) 4)에서 '개봉 첫날 예정 스크린 수'로 납부한 비용과 6.에서 '개봉 첫날 스크린 수'로 계산된 비용의 차액만큼 음저협에 추가 납부

8) 7)의 '차액'의 추가납부 시기는 음저협이 지정한 날에 따라 정산

**Q) 그렇다면 합의안에 따를 경우 음저협의 신탁곡을 사용했을 때 곡당 영화계가 지불하게 되는 저작권료는 얼마 정도가 되는가?**

A) 순제 10억 이상의 작품이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으로 개봉 첫날 300개 스크린관에서 개봉했다고 가정할 경우, 34조 1항에 의거해 “300만원 + (스크린 당 곡단가 13,500원 x 개봉 첫 날 스크린 수)”로 계산해 보면, 복제·배포·공연 등 일괄허락을 곡당 약 700만 원 정도가 된다.

개봉 예상 스크린 수	기존 곡 사용 음악 저작권료 (곡당 단가)
300개관	7,050,000 원
500개관	9,750,000 원
1,000개관	16,500,000원

단, 순제 10억 미만의 작품은 곡당 단가가 1/10로 감경해서 적용된다.

**Q) 합의 내용 중 저작인격권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A) 저작권자들이 음저협에 신탁하는 권리는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재산권적인 부분이다. 즉, 음저협은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자들의 인격권 동의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4. 합의 이전까지는 음저협 신탁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했었다. 그런데, 앞으로 9.4. 합의 이후부터 음저협의 기존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저협에만 34조 1항에 의거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다. 대신 영화에 기존곡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면, 예를 들면 마약과 관련한 장면, 과하게 잔인한 장면 등에서의 사용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화 통화 등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일 듯하다.

**Q) 이번 합의 전 한국영화가 지불하던 음악사용료는 어느 정도였나?**

A)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한국영화 146편 전체의 음악관련 총 비용은 39억이며, 이중 기존곡에 대한 저작권료는 대략 10억원, 음악감독비용은 29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순제작비 10억 이상의 영화의 경우, 편당 평균 음악관련 총비용은 58,000,000원, 기존곡에 대한 음악저작권료는 15,000,000원, 음악감독비용은 43,000,000원이었다.

영화계의 조사와는 달리 음저협은 2011년도 음악사용료 징수총액이 2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영화계가 지불한 10억 원과 비교할 때 대략 8억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Q) 이번 합의로 곡당 단가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닌가?**

A) 작년 통계 기준으로만 보면 곡당 단가가 다소 높아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고액이라 사용할 수 없었던 곡들을 작사/작곡가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음저협에 정액제로 비용만 납부하면 횡수, 사용시간 등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합의 이후 남은 과제**

**Q) 음저협과 기존곡 사용에 관련하여 영대위와 합의를 체결한 이후 영대위는 존속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A) 최초 영대위는 음저협과 영화음악사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기존곡 사용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직 창작곡, 해외음악 사용, 전송권에 관한 문제 등 영화음악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영화와 관련한 저작권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대위는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존속할 것이다.

**Q) 창작곡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A) 영화를 위해 창작한 곡은 신탁계약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음저협과 체결한 합의에서 과거 소급분 적용 문제와 함께 음저협소속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곡에 대한 권리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CGV 소송의 결과에 따르기로 음저협과 영화계가 합의를 한 상태다. 따라서 그 동안은 영대위가 음악감독과 계약에 관해 조언하는 내용(자료집 0000페이지 참조)을 따라 계약할 것을 권고한다.

### Q) 해외음악 사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A) 해외 음악에 대한 권리는 주로 해외 퍼블리셔들이 행사하고 있다. 해외 퍼블리셔들은 국내에 최초 복제권(일명 '싱크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복제 및 공연 등에 관해서는 음저협에 MOU를 체결해 권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해외 음악에 대해서도 '복제·배포·공연 등'의 권리가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음저협과 MOU를 다시 체결해 국내에서는 일괄되게 권리처리 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해외 곡도 34조 1항을 적용해 음저협에 이용허락을 신청하고 사용하면 된다. 음저협에서도 해외 퍼블리셔들과 이번 합의를 내용으로 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며, 영대위에도 이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며, 영대위도 노력 중에 있다.

### Q) 전송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A) 음저협이 올 1월에 문화부에 제출한 징수규정 개정안에는 전송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화부가 판단하기에도 전송에 관한 부분은 아직 시장 상황 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3월15일 승인안에서도 제외 시켰다. 하지만 음저협이 9월에 문화부에 다시 제출한 징수개정안에서는 전송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는 소수의 방송사가 전송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영화는 방송과 달리 다수의 산업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송처럼 특정 소수의 방송사를 대상으로 비용을 징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이런 시장의 상황을 문화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송에 관한 부분은 제외 시켰던 것이고, 영대위도 음저협과 협상을 하면서 전송에 관한 부분은 협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음저협이 전송에 관해 영화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차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 료

### •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 사용료에 관한 합의서(2012.09.04.)

#### 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합의서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이전 사용분에 대한 보상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협회의 사용료 규정(2012. 3. 15에 개정 승인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으로 이하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개정 이전 사용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 중, 롯데쇼핑(주)시네마사업본부에 대한 형사 고소는 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즉시 취하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은 메가박스(주)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씨제이 씨지브이(주)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그 재판 결과(창작곡의 권리 권한 등 포함)를 다른 대상((주)프리머스시네마, 롯데쇼핑(주)시네마사업본부, 메가박스(주))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 □ 사용료 규정 제34조 제1항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

2. 사용료 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의 곡당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300만원 + (\text{스크린당 곡단가} \times \text{개봉 첫날 스크린 수})$$

- \* 스크린당 곡단가는 13,500원으로 한다.
- \* 개봉 첫날 스크린 수는 영화진흥위원회 극장 입장권전산망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 \*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1/10로 한다.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규정 제3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저작권격권 동의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음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격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그 밖의 사항

4. 사용료 규정 제34조의 적용에 있어, 창작곡의 포함 여부는 이 합의서 제1항의 판결 결과에 따른다.
5.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련 사용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서식은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위와 같이 합의한다.

2012. 9. 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신영철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

박양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차승재

(주)인디플러그

대표이사 김정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임원진

## ○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 [www.kfpa.net](http://www.kfpa.net)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문의게시판 / 02)2267-9983/ [kfpa3@kfpa.net](mailto:kfpa3@kfpa.net)

## 기 존 곡 사 용 법

2012.09.04.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와 음악저작권협회가 날인한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기존곡 사용 방법

## [안내]

- 음저협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정보는 2012.09.13. 영화사용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실제 사용허락을 신청하는 당시 음저협 '영화사용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따라야 함
- ※ 2012.9.4. 양자 합의 전에 기존곡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저작권권 동의서"는 합의일자부터는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음

### 1. 음저협에 기존곡 사용을 위해 '영화사용신청서'를 안내에 따라 작성한 뒤 제출

비고1	비고2
<p>■ 음저협 홈페이지 (<a href="http://www.komca.or.kr">www.komca.or.kr</a>) 서식 다운로드</p>	<p>• 음저협 홈페이지(<a href="http://www.komca.or.kr">www.komca.or.kr</a>) 상단메뉴 중 [이용허락신청서]에서 '영화신청서' 서식 다운로드</p>
<p>■ 문의 및 접수처</p>	<p>• 전화) 02-2660-0503 / 팩스) 02-2660-0509 • 이메일) <a href="mailto:komca80@hanmail.net">komca80@hanmail.net</a></p>
<p>■ 제출서류</p>	<p>• 영화사용신청서 1부, 사용 저작물 리스트 (※ 영화사용신청서 2페이지에 있음) • 영화사용신청서 [공지사항]의 &lt;구비서류&gt; ①~③ - ①사업자등록증, ②음악 Scene 설명서, ③제작비확인서</p> <p>★③제작비확인서는, - 「순제작비 10억 이상」의 작품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작품만 제출함 - 순제작비 10억 미만 확인서는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 최경진 과장에게 문의 후 발급 받음 · 연락처) 02-958-7564</p>

### 2. 신청내역에 "34조1항"으로 기재



## 3. 개봉 첫날 예정 스크린수 기재

비고1	비고2
■ 개봉 2~3일 전 확정되는 스크린 수 기재	• 예매 개시 후 확정되는 스크린 수 참조

## 4. 3.에 기재한 '개봉첫날 예정 스크린수'를 기준으로 34조1항의 산식을 적용한 계산결과에 따른 비용을 음저협에 계좌이체로 납부

비고1	비고2
■ 산식	<p>• 300만원 + (스크린당 곡단가 13,500원 X 개봉 첫날 스크린 수)</p> <p>※ 산식은 '개봉 첫날 스크린수'이나, 3.의 '개봉 첫날 예정 스크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납부하고, 차액은 6~8에 따라 추후 정산</p> <p>★ 「순제작비 10억 미만」 작품은 “1/10로 감액”한 비용을 납부</p>
■ 계좌정보	<p>• 입금계좌 : 국민은행 851237-04-001225</p> <p>• 예금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p>

## 5. 음저협에서 “사용승인서” 수령

## 6. 개봉 첫날 영진위 통합전산망에서 '개봉 첫날 스크린수'를 확인하고, 34조1항 산식을 적용해 비용을 계산

★ 「순제작비 10억 미만」 작품은 “1/10로 감액”한 비용을 납부

## 7. 4.에서 '개봉 첫날 예정 스크린수'로 납부한 비용과 6.에서 '개봉 첫날 스크린 수'로 계산된 비용의 차액만큼 음저협에 추가 납부

## 8. 7.의 '차액'의 추가납부 시기는 음저협이 지정한 날에 따라 정산

## •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2012.03.15. 문화부 승인안)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2012.03.15. 문화부 승인안)			
제34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 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일반 상업영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 4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③제2항의 특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복제사용료와 별도로 영화상영이 종료된 후에 협회가 관리하는 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곡당 공연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한다.			
$\begin{aligned} & \text{" 해당영화 관람객수 x 평균관람료} \\ & \times 0.97(\text{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공제}) \\ & \times \text{음악사용료율 "} \end{aligned}$			
비고1)영화상영관이 공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주체인 '사용자'는 영화제작자로 하고, 영화제작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영화상영관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비고2)'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비율의 변동에 따라 위 부가금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비고3)'음악사용료율'이란 음악 1곡의 기여도로서 사용된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사용량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음악 사용료율	0.06%	0.1%	0.2%

• 합의안에 따른 영대위 계산 근거자료[합의안 산식: 300만원+곡당 기준단가3,000원x개봉첫날스크린 수]

2011년도 기준

구분	단위	
극장수	EA	292
스크린수	EA	1,982
극장당 평균스크린수	EA	6.79
영화석수	EA	341,905
스크린당 평균좌석수	EA	173

		총편수 및 총액 기준			편당 평균 기준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한국영화 개봉작	EA	145	64	82			
총편합계수	명	77,942,348	76,498,927	1,443,421	533,852	1,195,296	17,603
극장 총매출액(전산망)	원	577,708,052,800					
평균관람요금	원	7,737					
극장 총매출액(음악실태조사)	원	576,916,266,300	566,247,268,200	10,668,998,100	3,951,481,276	8,847,613,566	130,109,733
개봉 스크린수	EA	22,787	20,876	1,911	156.08	326.19	79.86
순제작비	원	217,367,884,457	203,660,061,467	13,707,822,990	1,488,821,126	3,182,188,460	167,168,573
마케팅비	원	101,397,454,374	96,724,979,431	4,672,474,943	694,503,112	1,511,327,804	56,981,402
총제작비	원	318,765,338,831	300,385,040,898	18,380,297,933	2,183,324,239	4,693,516,264	224,149,975
음악감독료	원	2,949,015,029	2,754,476,190	194,538,839	20,198,733	43,038,690	2,372,425
음악저작권료	원	988,157,660	939,506,375	48,651,285	6,166,203	14,679,767	593,306
음악비용 합계	원	3,937,172,689	3,693,982,565	243,190,124	26,966,936	57,718,478	2,965,733
순제작비 대비 음악감독료 비중	%	1.357%	1.352%	1.419%			
순제작비 대비 음악저작권료 비중	%	0.455%	0.461%	0.355%			
순제작비 대비 음악비용 비중	%	1.811%	1.814%	1.774%			
총제작비 대비 음악감독료 비중	%	0.925%	0.917%	1.058%			
총제작비 대비 음악저작권료 비중	%	0.310%	0.313%	0.265%			
총제작비 대비 음악비용 비중	%	1.235%	1.230%	1.323%			
사용곡수(기존곡+창작곡)	EA	3,081	1,786	1,295	21.103	27.906	15.793
사용곡수(기존곡)	EA	419	159	260	2.870	2.484	2.171

- 16 -

		총편수 및 총액 기준			편당 평균 기준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총편수 및 총액 기준			편당 평균 기준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영대위 < 스크린당 곡단가 >	100 원	360,780,991	349,444,597	11,336,394	5,460,072	138,249	전곡대상 논리모형 (0.3%/97원)
디스크리닝 곡단가 산출 : 매출과 연동	200 원	366,045,007	354,630,979	11,414,028	5,541,109	139,195	전곡대상 논리모형 (0.5%/194원)
	500 원	381,837,054	370,190,122	11,646,931	5,784,221	142,036	
* 스크린당 곡단가 = 곡당 스크린별 매출기준금액	1000 원	408,157,132	396,122,029	12,035,103	6,189,407	146,770	
* 곡당 음악사용요금	1500 원	434,477,210	422,053,935	12,423,275	6,594,593	151,503	
** 곡당 스크린별 매출기준금액=스크린 당 매출	1750 원	447,637,249	435,019,888	12,617,361	6,797,186	153,870	
액 / 사용곡수	2000 원	460,797,288	447,985,841	12,811,447	6,999,779	156,237	
** 곡당 음악사용요금=음악사용요금 / 사용곡수	2500 원	487,117,366	473,917,747	13,199,619	7,404,965	160,971	
	3000 원	513,437,444	499,849,654	13,587,791	7,810,151	165,705	영대위 제안안
- 매출을 근거한 최저협 요금 0.5%일 때 곡단가	4000 원	566,077,600	551,713,466	14,364,134	8,620,523	175,172	
기준금액은 1,750원으로 계산 됨	5000 원	618,717,757	603,577,279	15,140,478	9,430,895	184,640	
- 영대위 안 3,000원은 매출 근거한 사용요금으로	6000 원	671,357,913	655,441,091	15,916,822	10,241,267	194,108	
역산하면 0.85%에 해당 (현재 방송 적용 음악사용	7000 원	723,998,069	707,304,904	16,693,166	11,051,639	203,575	
요금 수준임)	8000 원	776,638,225	759,168,716	17,469,509	11,862,011	213,043	
	9000 원	829,278,382	811,032,529	18,245,853	12,672,383	222,510	
	10000 원	881,918,538	862,896,341	19,022,197	13,482,755	231,978	
	11000 원	934,558,694	914,760,154	19,798,541	14,293,127	241,446	
	12000 원	987,198,850	966,623,966	20,574,884	15,103,499	250,913	
	13000 원	1,039,839,007	1,018,487,779	21,351,228	15,913,872	260,381	기준곡대상 논리모형(0.3%/13102원)
	14000 원	1,092,479,163	1,070,351,591	22,127,572	16,724,244	269,848	
	15000 원	1,145,119,319	1,122,215,404	22,903,916	17,534,616	279,316	
	16000 원	1,197,759,475	1,174,079,216	23,680,259	18,344,988	288,784	
	17000 원	1,250,399,632	1,225,943,029	24,456,603	19,155,360	298,251	
	18000 원	1,303,039,788	1,277,806,841	25,232,947	19,965,732	307,719	
	19000 원	1,355,679,944	1,329,670,654	26,009,291	20,776,104	317,186	
	20000 원	1,408,320,100	1,381,534,466	26,785,634	21,586,476	326,654	
	21000 원	1,460,960,257	1,433,398,279	27,561,978	22,396,848	336,122	기준곡대상 논리모형(0.5%/21836원)
	22000 원	1,513,600,413	1,485,262,091	28,338,322	23,207,220	345,589	
	23000 원	1,566,240,569	1,537,125,904	29,114,666	24,017,592	355,057	
	24000 원	1,618,880,725	1,588,989,716	29,891,009	24,827,964	364,525	
	25000 원	1,671,520,882	1,640,853,529	30,667,353	25,638,336	373,992	
	26000 원	1,724,161,038	1,692,717,341	31,443,697	26,448,708	383,460	
	27000 원	1,776,801,194	1,744,581,154	32,220,041	27,259,081	392,927	
	28000 원	1,829,441,350	1,796,444,966	32,996,384	28,069,453	402,395	
	29000 원	1,882,081,507	1,848,308,779	33,772,728	28,879,825	411,863	
	30000 원	1,934,721,663	1,900,172,591	34,549,072	29,690,197	421,330	

- 17 -

•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

<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음악감독 계약서 중 영화음악대책위원회가 권고하는 '저작권' 관련 조항

(※ 저작권양도와 이용허락 중 택 1)

(※ 음악감독과 계약서 작성 시 음악감독이 해외의 공연권을 요청할 경우 "단서 조항" 포함)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관련 조문>

1. **(저작권 양도의 경우)**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작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저작권 양도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사'는 위 저작권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1. **(이용 허락의 경우)**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음악감독'에게 귀속된다. '음악감독'은 국내외에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자가 음악저작물을 '본건 영화'에 삽입하고 '본건 영화'를 상영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것(인터넷, 지상파, IPTV 등을 통한 영화의 송신, VOD 서비스의 제공, DVD 제작 및 배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을 허락하며, 이를 위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작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본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사'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단, 해외지역에서 공연사용료 등을 '갑'(제작사 또는 투자사)이 아닌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음악감독)'이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관련 조문>

1. '음악감독'은 영화의 특성상 '제작사'가 음악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영화 내에서 본건 음악저작물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삽입되는 장면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확한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감독 계약서 전문

<음악감독 계약서>

\_\_\_\_\_(제작투자사, 이하 '갑')과 \_\_\_\_\_(제작사, 이하 '을')과 \_\_\_\_\_(음악감독, 이하 '병')은 아래와 같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투자하고 '을' 제작하는 영화(제3조 제1항에 기재된 영화, 이하 '본건영화')에 대하여 '병'이 음악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갑', '을', '병' 3자 간의 권리와 의무, 수익배분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의 정의규정에 따른다.

- 음반 : 음(음성·음향 등을 의미함)이 고정된 유형물로서, 재생이 가능한 CD, LP, MC, MD 이외의 Multimedia 매체 관련 CDV, CD-ROM, CD-I, CD-Plus, DVD 등의 매체나 전자장치, 스마트폰 등에서 재생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로서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알려질 모든 매체를 말한다.
- 디지털 음원 :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휴대용 통신기기 등 네트워크 상에서의 무형의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디지털 음원파일의 다운로드, 모바일 통신기기를 통한 음원전송 서비스,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및 기타 방송매체를 통한 음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복제 및 전송의 단계를 거치는 모든 디지털매체로서,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알려질 모든 매체를 말한다.
- OST :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riginal Sound Track)으로 영화 속에 삽입되거나 혹은 삽입되지 않지만 '본건영화'를 위해 제작 또는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을 말한다.
- Master 음반 : 음반의 대량생산과 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Original(원형, 원작) 녹음물을 말한다.
- 그 외 본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의가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의 해석, 거래관행, 본 계약 체결당시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

**제3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해 '병'이 음악감독으로서 용역을 수행하는 본건영화는 다음과 같다.

- 영화제목 :
- 제작형식 :
- 감독 :
- 제작 :
- 제작투자 :

**제4조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 등)**

- '을'은 '병'에게 '병'의 음악감독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보수로 금 \_\_\_\_\_원(부가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계약금 : 금 \_\_\_\_\_원 (부가세 별도)  
지급일 \_\_\_\_년 \_\_\_\_월 \_\_\_\_일(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  
(주의사항 :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잔 금 : 금 \_\_\_\_\_원 (부가세 별도)  
지급일 \_\_\_\_년 \_\_\_\_월 \_\_\_\_일(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  
(주의사항 : 잔금 지급일은 A프린트 제작완료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지급계좌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을'은 다음 각 호의 음악저작물을 '본건영화'의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이 '갑'과 '병'의 서면합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음악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작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을'에게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과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병'이 창작하거나 '병'의 지시나 감독을 통해 '본건영화'를 위해 창작된 음악저작물
  - '갑', '을', '병'이 '본건영화'의 제작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기존의 음악저작물
- '갑' 또는 '을'은 '병'에게,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나 작업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병'이 음악감독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병'의 권리와 의무 등)**

- '병'은 '본건영화'의 음악감독으로서 본건영화의 제작에 사용되거나 본건영화의 OST에 수록될 음악저작물의 프로듀싱·편곡·창작·창작지시 및 감독, Master음반의 제작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병'은 사운드 믹싱에 적합한 형태로 Master음반을 제작하여 '본건영화'의 개봉일 기준 [ ]주 전까지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병'은 업무수행에 있어 '을'이 제시한 기획의도와 방향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다.
- '병'은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갑', '을'과의 협의하에 정한 제작일정표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 '병'의 용역제공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A프린트 제작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은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용역제공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하며 '병'의 귀책사유에 의해 용역제공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추가보수의 구체적인 금액은 '갑', '을', '병'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병'은 본 계약에 의해 제공한 용역이 타인의 저작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병'이 부담하고 '갑'과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갑’ 또는 ‘을’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은 ‘갑’ 또는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조 (저작권의 귀속)

‘본건영화’에 사용되거나 ‘OST’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저작권재산권 및 저작권격권 포함)은 각 음악저작물의 해당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제4조 제2항 1호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병’에게 귀속된다.

#### 제7조 (저작물 및 저작물의 2차적 이용)

- ① ‘병’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공한 용역결과물(창작곡, 편곡음악, Master음반 등)에 대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을 가지는 경우, ‘갑’ 또는 ‘을’에게 그 용역결과물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본건영화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극장에서 상영되거나 재상영되는 경우
  2. TV(지상파TV, 케이블TV, IPTV 등 포함) 또는 위성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경우
  3. 본건영화가 비디오테이프, DVD, VCD, 뮤직비디오&DVD(‘본건영화’의 영상클립과 결합한 형태에 한함), 스틸, 홍보사진, 도서출판, 캐릭터, 속편 저작권, 수출 등을 포함하여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매체 등에 삽입되어 사용되는 경우
- ② 위 1항 각 호의 사용으로 인해 공연사용료, 방송사용료, 복제사용료 등의 저작권재산료가 발생하면 그 저작권재산권료는 ‘병’에게 귀속되며 ‘갑’ 또는 ‘을’은 ‘병’에게 그 권리의 포기 또는 이전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갑’, ‘을’, ‘병’이 협의하여 수익배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 ③ 위 1항에서 사용을 승인한 권리를 제외하고 본건영화의 사용과 결합되지 않은 형태로 해당 용역결과물의 저작권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는 ‘병’에게 있다. 단, 본건영화에 삽입되거나, OST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접권과 관련한 모든 판권(OST 음반 및 디지털 음원 등)의 관리 및 운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 또는 ‘을’이 담당하기로 하고 ‘병’은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다.
- ④ ‘갑’ 또는 ‘을’은 ‘병’에게 제14조 제12항 2호의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물의 사용 승인이나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책임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 제8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 ‘갑’, ‘을’, ‘병’은 원칙적으로 3자 모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병’이 질병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갑’ 또는 ‘을’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되는 법인에게, ‘갑’ 또는 ‘을’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분할법인에게 본 계약상의 제반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가 승계된다.

####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갑’, ‘을’, ‘병’은 상호간에 공유 또는 교환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정보, 본 계약서의 내용 기타 관련내용 및 자료들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보상)

1. ‘갑’, ‘을’, ‘병’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한쪽의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위반 당사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 당사자는 최고없이 본건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상호간 제공된 각종 권리는 원상회복된다. 다만 피해자는 본 계약관계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 제11조 (불가항력 등)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 ‘을’, ‘병’ 3자의 합의하에 해결한다.

#### 제12조 (관할법원)

‘갑’, ‘을’, ‘병’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13조 (효력발생시기)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 ‘을’, ‘병’ 3자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부 작성, 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감독 계약서로 계약할 경우 문제점

- ✓ 음저협 계약서의 7조(저작물 및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한 조항은 영대위가 권고하는 저작권관련 조항과 충돌함
- ✓ 따라서, 음저협 계약서로 계약을 하면, 영화제작 때 지불한 음악관련 비용 외에 극장 상영, DVD 등 제작, 수출, TV(케이블, IP, 위성 등) 방송 등에 관해서도 건마다 음악사용에 관한 저작권료를 지출해야 함
- ✓ 영대위 권고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삽입한 계약서로 음악감독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기존 영화제작을 하던 것처럼 영화 제작할 때 향후 권리에 대해 일괄 허락을 받고 계약을 한 것과 같음

영대위 권고 저작권관련 조항	음저협 계약서 저작권 조항
<p><b>&lt;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관련 조문&gt;</b></p> <p>1. <b>(저작권 양도의 경우)</b>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작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저작권 양도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사'는 위 저작권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p> <p>1. <b>(이용 허락의 경우)</b>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음악감독'에게 귀속된다. '음악감독'은 국내외에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자가 음악저작물을 '본건 영화'에 삽입하고 '본건 영화'를 상영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것(인터넷, 지상파, IPTV 등을 통한 영화의 송신, VOD 서비스의 제공, DVD 제작 및 배포 등을 포함하</p>	<p><b>제7조 (저작물 및 저작물의 2차적 이용)</b></p> <p>① '병'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공한 용역결과물(창작곡, 편곡음악, Master음반 등)에 대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을 가지는 경우, '갑' 또는 '을'에게 그 용역결과물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건영화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극장에서 상영되거나 재상영되는 경우</li> <li>2. TV(지상파TV, 케이블TV, IPTV 등 포함) 또는 위성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경우</li> <li>3. 본건영화가 비디오테이프, DVD, VCD, 뮤직비디오&amp;DVD('본건영화'의 영상클립과 결합한 형태에 한함), 스틸, 홍보사진, 도서출판, 캐릭터, 속편 제작권, 수출 등을 포함하여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매체 등에 삽입되어 사용되는 경우</li> </ol> <p>② 위 1항 각 호의 사용으로 인해 공</p>

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을 허락하며, 이를 위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작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본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사'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단, 해외지역에서 공연사용료 등을 '갑'(제작사 또는 투자사)이 아닌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음악감독)'이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관련 조문>**

1. '음악감독'은 영화의 특성상 '제작사'가 음악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영화 내에서 본건 음악저작물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삽입되는 장면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 하지 않을 것을 약한다.

연사용료, 방송사용료, 복제사용료 등의 저작재산권료가 발생하면 그 저작재산권료는 '병'에게 귀속되며 '갑' 또는 '을'은 '병'에게 그 권리의 포기 또는 이전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갑', '을', '병'이 협의하여 수익배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 ③ 위 1항에서 사용을 승인한 권리를 제외하고 본건영화의 사용과 결합되지 않은 형태로 해당 용역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는 '병'에게 있다. 단, 본건영화에 삽입되거나, OST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접권과 관련한 모든 판권(OST 음반 및 디지털 음원 등)의 관리 및 운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 또는 '을'이 담당하기로 하고 '병'은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다.
- ④ '갑' 또는 '을'은 '병'에게 제14조 제12항 2호의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물의 사용승인이나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책임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용료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을 포함한다), (주)SBS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EBS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 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산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정계수	0.46	0.52	0.58	0.65	0.72

비고3) 음악저작권 사용료 총지급액은 전년도 총지급액 대비 8.5% 이상 증가할 수 없다.

비고4) 지역문화방송의 경우 최종 산출된 음악사용료에서 5%를 감액한다.

②(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음악사용료율) × 0.72(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다만,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비고2)와 같다.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방송초기연도와 그 익년도 및 방송종료 연도에 한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산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같다.)

비고2)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43	0.52	0.54

③교육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5/100(조정계수) × 0.35%(음악사용료율)

④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6/100(조정계수) × 1.2%(음악사용료율)

다만, 경기방송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50	0.55	0.60

⑤교통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6/100(조정계수) × 1.35%(음악사용료율)

⑥극동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6/100(조정계수) × 0.7%(음악사용료율)

⑦국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70/100(공제계수) × 1%(음악사용료율) × 0.72(조정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용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TV 및 라디오 방송제작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말한다.

비고2) 음악저작권 사용료 총지급액은 전년도 총지급액 대비 최저 8.5% 이상 증가할 수 없다.

⑧아리랑FM 등 외국어 라디오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35%(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용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입(협찬수입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산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아리랑 FM의 매출액은 전년도 정부지원금(방송통신발전기금) 중 FM 방송제작비를 말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46	0.60	0.75	0.90	1.00

⑨국악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0.7%(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비고1) 매출액이란 일체의 전년도 정부지원금, 기금수입 및 광고수입 등을 말한다. 다만, 방송시설 운영비, 노후장비교체, 전국화 비용을 공제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60	0.70	0.80	0.90	1.00

⑩YTN라디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70/100 × 46/100 × 0.6% × 음악저작물 관리비용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방송협찬수입과 광고판매수입을 말한다.

**제17조(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홈쇼핑채널(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 매출액 × 40/100(공제계수) × 조정계수 × 2.5%(음악사용료율)

비고1) 기준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 총이익의 15%로 한다.

비고2) 공제계수 :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 지출을 감안한 비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비고3)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37	0.39	0.42

②홈쇼핑채널이외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60/100(공제계수)×조정계수×음악사용료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수입 및 광고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이하 같다).

비고2) 음악채널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조정계수	0.39	0.41

비고3) 오락채널, 교양종교채널, 스포츠채널, 보도채널, 기타채널 년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52	0.55	0.59

비고4) 채널별 음악사용료율은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채널: 4%, 음악버라이어티채널: 2.3%, 오락채널: 1.1%, 교양·종교채널: 1%, 스포츠채널: 0.6%, 보도채널: 0.5%, 기타 채널: 0.35%

**제18조(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방송총수입×공제계수×45/100(조정계수)×0.5%(음악사용료율)×연도별 차등적용율

비고 1) 공제계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 2) 연도별 차등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75/100, 2003년도 85/100, 2004년도 이후 100/100

**제19조(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50/100 × 45/100(조정계수) × 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수입 PPV채널수입, 광고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2) 연도별 음악사용료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음악사용료율	0.55%	0.57%	0.7%	0.8%	1.0%

**제19조의 2(IPTV 등에 대한 음악사용료)** IPTV에 대한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1.2%(음악사용료율)×0.47(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연도 수신료수입(유료수신료 수입 포함),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 및 기타 본 서비스관련수입(지원금, 판권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단, 광고수입 중 광고대행수수료로 30%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19조의 3(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상파 DMB에 대한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45/100(조정계수)×1%(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연도 광고수입을 말하며, 일반 징수경비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0.2%(음악사용료율)

**제21조(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2%(음악사용료율)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철도(전철, 기차)에서 제공되는 영상서비스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0.1%(음악사용료율) × 연도별차등적용율

비고1) 매출액이란 이동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업광고수입, 협찬광고수입 및 기타 방송과 관련한 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비고2) 연도별차등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50/100, 2003년도 60/100, 2004년도 70/100, 2005년도 85/100, 2006년도 100/100